

논문접수일 : 2013.12.20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브래지어 맞음새 및 착용감 향상을 위한 착용실태 조사

-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Bra Wearing Behaviors for Improvements in Fit and Comfort

- A Focus on Women in Their 30s -

주저자 : 김지민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강사

Kim, Ji Min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교신저자 : 김효숙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Kim, Hyo Sook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부분 발췌하여 작성함.

1. 서 론

2. 연구방법 및 절차

- 2.1. 조사대상 및 기간
- 2.2.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 2.3. 자료 분석방법

3. 연구결과 및 고찰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브래지어 착용목적 및 기능
- 3.3. 유방형태와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 3.4. 브래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신체의 퇴화가 시작되고 임신·출산·수유 등 내·외적인 영향으로 유방의 형태변화를 겪게 되는 3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맞음새와 착용감이 우수한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대상자의 착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브래지어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유방의 크기와 돌출정도 향상 등 미적효과 보다는 유방의 형태변화를 보정해주는 브래지어의 기본 효과를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은 전반적으로 브래지어 구매 시 사이즈, 디자인, 착용감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당한 맞음새에 조금 여유로운 사이즈의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브래지어 착용 시 와이어, 컵밑받침과 날개 연결부위, 어깨끈 부위 순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후 불만족 요인으로는 사이즈, 착용감, 와이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3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불만족 요인을 반영하고 유방형태 변화를 고려한 브래지어 제작이 요구된다.

주제어

브래지어, 30대 여성, 착용실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brassieres that have a high level of fit and comfort for women in their 30s, whose bodies have started to go through biological aging process and experience changes in their breast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include pregnancy, childbearing and breastfeedi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341 women in their 30s, who are currently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identify their bra wearing behaviors and unsatisfying factors in wearing brassieres.

The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have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expected to have their breasts placed into a better position for a balanced upper body proportion instead of having the aesthetical effects, such as an increased size or volume of their breasts.

A large proportion of women in the survey responded that they consider size, design and fi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purchasing a bra. For the question on the level of fit of a bra, many answered that they want their bras to fit just right or little bit loose, and thus, prefer to wear their bras more comfortably.

Therefore, bra wearing behaviors, unsatisfying factors of wearing a bra,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breast shapes should be reflected and carefully considered in the construction of brassiere for women in their 30s.

Keywords

Brassiere, Women in their 30s, Wearing behavior

1. 서 론

2차 성장을 거쳐 20대 성년이 된 후 가장 이상적인 반구형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여성의 유방은 환경, 연령, 체형, 신체 발달 등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 개인별 형태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체형변화와 함께 가장 큰 외관적 변화를 보이는 신체 부위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와 신진대사의 감소로 피하지방이 축적되면서 유방의 형태, 용적, 유두 위치 등에 영향을 미쳐 연령 증가로 인한 유방의 하수현상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지고 전반적인 상체 프로포션의 변화를 겪게 된

다. 이에 따라 유방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지탱하고 가슴 부위 균형을 보정하여 상체 실루엣을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브라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활동성과 맞음새가 우수하고 착용감이 편안한 브라지어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다변화를 겪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의 체형은 보편적인 체형 연령 기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유방과 브라지어 관련 선행연구는 최상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20대 여성(김희선, 2008; 민유숙, 2012; 박유신, 2001)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여성(권윤희, 2000; 이현영, 2002; 조신현, 김미숙, 2008)과 노년여성(나미향, 2009; 서영희, 정삼호, 2008)으로 편중되면서 30대 여성을 위한 브라지어 연구·개발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지속적인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브라지어는 속옷업체별 치수체계나 제조업체별 치수규격에 맞춰 제작되고, 대부분 제조업체의 표준 치수는 시장경향을 따르거나 신체적 변화가 미미한 20대 성인여성의 특징과 치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 연령대 성인여성의 경우 치수 및 형태 부적합으로 인해 브라지어 착용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윤희, 2000; 김미영, 2007; 박유신, 2001). 또한 성인여성 중에는 브라지어 치수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본인이 착용하는 브라지어 치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A컵이나 B컵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젓가슴둘레와 젓가슴아래둘레 치수만으로 브라지어 사이즈를 결정하여 체형에 맞지 않는 브라지어를 구매함으로써 기본적인 보정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부현, 권수애, 2012). 이와 같이 브라지어 맞음새와 착용감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할 경우 브라지어 착용 시 신체와 브라지어 사이에 들뜸 현상이나 당김, 조임 현상 등이 발생하여 브라지어의 형태가 뒤틀리고 동작 시 당겨 올라가거나 특정부위에 눌림현상이 나타나 답답함과 불편감까지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착용한 여성의 체형변형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유방 유형과 형태 변화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맞음새와 착용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본격적인 신체 퇴화가 시작되는 연령대로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적 체형변이가 두드러지고 사회·외부활동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다양하여 개인별 형태나 치수 차이가 명

확해지므로 30대 여성을 초·중·후반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집단별 브라지어 착용실태를 파악하여 브라지어 제작에 반영하고 사회·시대적 변화 등을 수용한다면 브라지어 착용으로 인한 불만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평소 브라지어 착용실태, 유방형태와 브라지어 치수 인지도, 브라지어 착용에 대한 불만족 요인 등을 파악하여 맞음새와 착용감이 우수한 브라지어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방의 30~39세 여성 중에서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으로 36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6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19부를 제외한 341부를 연구대상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조사는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대상 연령층의 브라지어 착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브라지어 착용목적 및 기능에 관한 문항, 유방형태와 브라지어 치수 인지도에 관한 문항, 브라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라지어 착용목적 및 기능은 박은미, 김영숙, 손희순(1996)과 권윤희(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유방형태와 브라지어 치수 인지도는 김미영(200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6문항, 브라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은 김연주(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7문항으로 하였다.

2.3. 자료 분석방법

설문조사의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항목별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고, 30대 연령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와 χ^2 , F-test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341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유방의 형태변화, 브래지어의 착용효과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집단을 30대 전반, 중반, 후반으로 세분화하였고 평균연령은 34.06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신체 치수를 살펴보면 키는 160-165cm 구간에서 48.09%의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평균 키는 161.85cm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50-55kg(39.30%) 구간과 55-60kg(26.69%)에서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평균은 53.75kg으로 조사되었다. 사이즈코리아의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3D 측정치의 30대 평균 신장 160.21cm와 몸무게 56.10kg을 조사대상자와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의 키가 1.64cm 크고, 몸무게는 2.35kg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53.37%로 미혼자(46.63%)보다 많았으며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혼자의 분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혼자 중에도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1.58%나 차지했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 중에도 36.66%만 수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도 OEC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30대 여성의 혼인율은 약간 증가한 반면 출산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74.19%가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되어 30대 여성 대부분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브래지어 착용목적 및 기능

1) 브래지어 착용목적

브래지어 착용목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와 같다. ‘몸의 균형을 높이고 걸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자가 40.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적인 가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해’가 16.72%로 나타났다.

[표 3]의 연령집단별 브래지어 착용시간의 관계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외출

시에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착용하지 않음’이 46.63%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연령 집단별로는 30대 초반의 응답이 1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4시간 착용’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연령집단 응답의 23.46%나 되었고, 그 중 30대 후반이 9.97%를 차지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슴이 처지는 체형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착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거의 착용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N(%)	
변인	범주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초반	126 (36.95)	
	30대 중반	122 (35.78)	
	30대 후반	93 (27.27)	
키	150-155cm 미만	12 (3.52)	
	155-160cm 미만	74 (21.70)	
	160-165cm 미만	164 (48.09)	
	165-170cm 미만	74 (21.70)	
	170cm 이상	17 (4.99)	
몸무게	45kg 미만	14 (4.11)	
	45-50kg 미만	49 (14.37)	
	50-55kg 미만	134 (39.30)	
	55-60kg 미만	91 (26.69)	
	60-65kg 미만	39 (11.44)	
	65-70kg 미만	10 (2.93)	
	70kg 이상	4 (1.17)	
결혼여부	미혼	30대 초반	83 (24.34)
		30대 중반	57 (16.72)
		30대 후반	19 (5.57)
		합계	159 (46.63)
	기혼	30대 초반	43 (12.61)
		30대 중반	65 (19.06)
		30대 후반	74 (21.70)
	합계	182 (53.37)	
기혼자 중 출산자녀수	0명	210 (61.58)	
	1명	68 (19.94)	
	2명	59 (17.30)	
	3명 이상	4 (1.17)	
기혼자 중 수유경험	있음	125 (36.66)	
	없음	216 (63.34)	
직업	무직	5 (1.47)	
	전업주부	71 (20.82)	
	학생	12 (3.52)	
	사무직	97 (28.45)	
	판매/서비스직	20 (5.87)	
	자영업	9 (2.64)	
	전문직	114 (33.43)	
기타	13 (3.81)		
	합계	341 (100.00)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N(%)				
착용목적	연령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χ^2
	습관상		11 (3.23)	9 (2.64)	10 (2.93)	
몸의 균형을 높이고 걸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57 (16.72)	53 (15.54)	29 (8.50)	139 (40.76)	
동작 시 가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5 (1.47)	3 (0.88)	9 (2.64)	17 (4.99)	
젖꼭지점 등 유방형태가 의복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11 (3.23)	20 (5.87)	17 (4.99)	48 (14.08)	

[표 2] 브래지어 착용목적

착용목적	연령	N(%)				x ²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유방의 처짐이나 벌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 (3.23)	10 (2.93)	11 (3.23)	32 (9.38)	23.17 df=16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적인 가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해		23 (6.74)	21 (6.16)	13 (3.81)	57 (16.72)	
유방의 크기를 풍만하게 보이기 위해		8 (2.35)	4 (1.17)	3 (0.88)	15 (4.40)	
유방의 크기를 작게 보이기 위해		0 (0.00)	2 (0.59)	1 (0.29)	3 (0.88)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

[표 2] 브래지어 착용목적 -(계속)

착용시간	연령	N(%)				x ²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24시간 착용		21 (6.16)	25 (7.33)	34 (9.97)	80 (23.46)	16.67* df=6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착용		39 (11.44)	44 (12.90)	19 (5.57)	102 (29.91)	
외출 시에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착용하지 않음		66 (19.35)	53 (15.54)	40 (11.73)	159 (46.63)	
거의 착용하지 않음		0 (0.00)	0 (0.00)	0 (0.00)	0 (0.00)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

*p<0.05

[표 3] 브래지어 착용시간

2) 브래지어 구매 시 고려요인

브래지어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3가지 요인을 순위대로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30대 초반, 중반, 후반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표 4]. 1순위는 사이즈, 2순위는 디자인, 3순위는 착용감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선택했으며, 유행성, 바느질상태, 세탁관리편리성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여성과는 달리 20대 초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홍우 외 3인(2009)의 연구에서는 브래지어 구입 시 중요요인이 1순위 사이즈, 2순위 형태, 3순위 가격으로 나타나 20대 여대생은 3

요인	연령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사이즈		53(15.54)	15(4.40)	4(1.17)	193	60(17.60)	12(3.52)	5(1.47)	209	42(12.32)	10(2.93)	8(2.35)	154
디자인		31(9.09)	32(9.38)	22(6.45)	179	18(5.28)	28(8.21)	21(6.16)	131	16(4.69)	19(5.57)	15(4.40)	101
색상		0(0.00)	13(3.81)	13(3.81)	39	2(0.59)	10(2.93)	12(3.52)	38	2(0.59)	12(3.52)	9(2.64)	39
가격		3(0.88)	6(1.76)	23(6.74)	44	2(0.59)	11(3.23)	18(5.28)	46	5(1.47)	11(3.23)	10(2.93)	47
상표		2(0.59)	4(1.17)	6(1.76)	20	2(0.59)	3(0.88)	2(0.59)	14	2(0.59)	0(0.00)	5(1.47)	11
유행성		0(0.00)	0(0.00)	1(0.29)	1	0(0.00)	0(0.00)	0(0.00)	0	0(0.00)	0(0.00)	1(0.29)	1
활동성		3(0.88)	9(2.64)	7(2.05)	34	1(0.29)	5(1.47)	12(3.52)	25	3(0.88)	7(2.05)	7(2.05)	30
바느질 상태		0(0.00)	1(0.29)	0(0.00)	2	0(0.00)	1(0.29)	1(0.29)	3	0(0.00)	0(0.00)	0(0.00)	0
세탁관리편리성		0(0.00)	1(0.29)	5(1.47)	7	1(0.29)	0(0.00)	2(0.59)	5	0(0.00)	1(0.29)	1(0.29)	3
소재 및 촉감		3(0.88)	17(4.99)	9(2.64)	52	7(2.05)	13(3.81)	10(2.93)	57	4(1.17)	3(0.88)	9(2.64)	27
보정감		11(3.23)	9(2.64)	10(2.93)	61	4(1.17)	12(3.52)	11(3.23)	47	4(1.17)	9(2.64)	6(1.76)	36
착용감		20(5.87)	13(3.81)	22(6.45)	108	21(6.16)	25(7.33)	21(6.16)	134	13(3.81)	18(5.28)	22(6.45)	97
실루엣		0(0.00)	6(1.76)	3(0.88)	15	4(1.17)	1(0.29)	7(2.05)	21	2(0.59)	2(0.59)	0(0.00)	10
기타		0(0.00)	0(0.00)	1(0.29)	1	0(0.00)	1(0.29)	0(0.00)	2	0(0.00)	1(0.29)	0(0.00)	2
합계		126(36.95)	126(36.95)	126(36.95)	-	122(35.75)	122(35.75)	122(35.75)	-	93(27.27)	93(27.27)	93(27.27)	-

상대빈도: (1순위*3)+(2순위*2)+(3순위*1)로 산출하였음

[표 4] 브래지어 구입 시 중요요인 순위

0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브래지어 착용 시 몸에 맞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적당하게’ (56.01%), ‘딱 맞게’ (42.82%)가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표 5]. 차수정, 손희순(2010)의 한국 20대 전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브래지어 피트 정도에서 꼭 맞는 형(64.8%)이 중간 정도로 적당히 맞는 형(30.6%)보다 두 배 이상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30대 여성이 선호하는 피트 정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30대 여성들은 몸을 조여 답답하게 브래지어를 착용하기보다는 활동에 용이하도록 적당히 여유 있고 편안하게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는 정도	연령	N(%)				x ²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헐렁하게		1 (0.29)	0 (0.00)	1 (0.29)	2 (0.59)	2.86 df=6
적당하게		68 (19.94)	72 (21.11)	51 (14.96)	191 (56.01)	
딱 맞게		56 (16.42)	50 (14.66)	40 (11.73)	146 (42.82)	
꼭 조이게		1 (0.29)	0 (0.00)	1 (0.29)	2 (0.59)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

[표 5] 브래지어 착용 시 몸에 맞는 정도

3)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대한 만족도

브래지어 착용효과의 중요 정도는 [표 6]과 같이 8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젖꼭지점이 드러나는 것 방지하기, 유방의 흔들림 방지하기 항목에서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젖꼭지점이 드러나는 것 방지하기, 유방의 흔들림 방지하기 항목 모두 30대 후반, 초반, 중반의 순으로 착용효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 만들기, 유방 풍만하게 보이기, 유방 봉긋하게 보이기, 유방 받쳐주기, 유방모아주기의 항목에서는 30대 초반 집단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전체적인 유방 끌어 올리기의 항목에서는 30대 후반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유방 크기 변화, 유방 돌출 정도 변화, 유방 벌어짐 정도 변화, 유방 처짐 정도 변화, 젖꼭지점 위치변화를 조사하였다. 유방의 처짐 정도 변화 항목에서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중반, 후반, 초반의 순으로 만족도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보통' 으로 나타나 브래지어 착용으로 인한 유방형태 보정 정도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30대 여성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브래지어의 보정성을 향상시켜 착용 시 유방의 형태를 바로 잡아주는 브래지어 개발이 필요하다.

연령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F-test
	M	S.D.	M	S.D.	M	S.D.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 만들기	4.15	0.85	4.12	0.98	4.09	0.90	0.14
유방 풍만하게 보이기	3.74	1.05	3.52	1.11	3.46	1.14	2.10
유방 봉긋하게 보이기	3.70	0.94	3.56	1.06	3.53	1.10	0.92
유방 받쳐주기	4.35	0.68	4.20	0.79	4.20	0.87	1.38
유방 모아주기	4.20	0.74	4.16	0.85	4.14	0.88	0.14
젖꼭지점이 드러나는 것 방지하기	4.23 (b)	0.86	4.21 (b)	0.96	4.53 (a)	0.65	4.41*
유방의 흔들림 방지하기	3.96 (ab)	0.86	3.80 (b)	0.97	4.14 (a)	0.87	3.67*
전체적인 유방 끌어 올리기	3.95	0.90	3.88	0.98	4.15	0.97	2.29

*p<0.05, 알파벳은 Duncan-test 검증결과(a>b).

[표 6] 브래지어 착용효과 중요 정도

연령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F-test
	M	S.D.	M	S.D.	M	S.D.	
유방 크기 변화	3.20	0.73	3.39	0.79	3.35	0.83	2.02
유방 돌출 정도 변화	3.33	0.73	3.37	0.76	3.34	0.81	0.70
유방 벌어짐 정도 변화	3.29	0.74	3.31	0.78	3.24	0.88	0.25
유방 처짐 정도 변화	3.30 (b)	0.73	3.54 (a)	0.77	3.33 (ab)	0.95	3.10*
젖꼭지점 위치변화	3.21	0.64	3.20	0.64	3.25	0.56	0.18

*p<0.05, 알파벳은 Duncan-test 검증결과(a>b).

[표 7]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대한 만족도

3.3. 유방형태와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1) 유방형태 인지도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유방형태를 살펴본 결과, 연령집단별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표 8]. 원추형(38.71%), 반구형(24.63%), 하수형 I (20.53%), 납작형(11.73%), 돌출형(3.52%), 하수형 II(0.88%)의 순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원추형과 반구형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낮은 분포를 보이며 하수형 I 은 연령증가에 따라 높은 분포를 나타내어 연령증가에 따른 유방형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납작형은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돌출형과 하수형 II는 30대 연령대에서 낮은 빈도율을 보였다.

연령	N(%)				x ²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납작형	12(3.52)	11(3.23)	17(4.99)	40(11.73)	27.36* df=10
원추형	63(18.48)	48(14.08)	21(6.16)	132(38.71)	
반구형	32(9.38)	28(8.21)	24(7.04)	84(24.63)	
돌출형	4(1.17)	6(1.76)	2(0.59)	12(3.52)	
하수형 I	15(4.40)	27(7.92)	28(8.21)	70(20.53)	
하수형 II	0(0.00)	2(0.59)	1(0.29)	3(0.88)	

*p<0.05

[표 8] 연령 집단별 유방형태

유방의 형태, 유방의 크기, 유방의 돌출 정도, 유방의 벌어짐 정도, 유방의 처짐 정도, 유방의 위치에 관한 인지도는 [표 9]와 같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는 '보통' 과 '불만족'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유방의 크기 항목에 관한 인지도는 약간 불만족(35.78%), 보통(29.33%), 약간 만족(18.48%), 불만족(13.20%), 매우 만족(3.23%) 순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전체의 48.98%를 차지하여 유방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방의 형태, 유방의 돌출 정도, 유방의 벌어짐 정도, 유방의 처짐 정도에 관한 인지도는 모두 '보통' 에 응답한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불만족스럽다' 는 응답률도 각각 32.84%, 36.66%, 38.12%, 39.29%로 30% 이상의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유방의 위치 항목은 '보통' 이 51.91%, '약간 만족' 이 21.1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만족스럽다' 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유방의 크기, 유방의 벌어짐 정도, 유방의 처짐 정도의 요인 등 연령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

방의 변형을 중점적으로 보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위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N(%)			
인지도	연령	30대 초반 (N=126)	30대 중반 (N=122)	30대 후반 (N=93)	합계 (N=341)
유방의 형태	매우 불만족	8 (2.35)	7 (2.05)	7 (2.05)	7 (6.45)
	약간 불만족	25 (7.33)	38 (11.14)	27 (7.92)	90 (26.39)
	보통	60 (17.60)	52 (15.25)	38 (11.14)	150 (43.99)
	약간 만족	28 (8.21)	20 (5.87)	20 (5.87)	68 (19.94)
	매우 만족	5 (1.47)	5 (1.47)	1 (0.29)	11 (3.23)
유방의 크기	매우 불만족	18 (5.28)	15 (4.40)	12 (3.52)	45 (13.20)
	약간 불만족	41 (12.02)	48 (14.08)	33 (9.68)	122 (35.78)
	보통	36 (10.56)	39 (11.44)	25 (7.33)	100 (29.33)
	약간 만족	27 (7.92)	15 (4.40)	21 (6.16)	63 (18.48)
	매우 만족	4 (1.17)	5 (1.47)	2 (0.59)	11 (3.23)
유방의 돌출 정도	매우 불만족	9 (2.64)	9 (2.64)	9 (2.64)	27 (7.92)
	약간 불만족	29 (8.50)	40 (11.73)	29 (8.50)	98 (28.74)
	보통	56 (16.42)	53 (15.54)	38 (11.14)	147 (43.11)
	약간 만족	30 (8.80)	18 (5.28)	17 (4.99)	65 (19.06)
	매우 만족	2 (0.59)	2 (0.59)	0 (0.00)	4 (1.17)
유방의 벌어짐 정도	매우 불만족	12 (3.52)	7 (2.05)	6 (1.76)	25 (7.33)
	약간 불만족	39 (11.44)	38 (11.14)	28 (8.21)	105 (30.79)
	보통	57 (16.72)	62 (18.18)	45 (13.20)	164 (48.09)
	약간 만족	16 (4.69)	11 (3.23)	13 (3.81)	40 (11.73)
	매우 만족	2 (0.59)	4 (1.17)	1 (0.29)	7 (2.05)
유방의 처짐 정도	매우 불만족	7 (2.05)	9 (2.64)	9 (2.64)	25 (7.33)
	약간 불만족	32 (9.38)	40 (11.73)	37 (10.85)	109 (31.96)
	보통	66 (19.35)	56 (16.42)	34 (9.97)	156 (45.75)
	약간 만족	19 (5.57)	12 (3.52)	12 (3.52)	43 (12.61)
	매우 만족	2 (0.59)	5 (1.47)	1 (0.29)	8 (2.35)
유방의 위치	매우 불만족	6 (1.76)	3 (0.88)	4 (1.17)	13 (3.81)
	약간 불만족	16 (4.69)	25 (7.33)	26 (7.62)	67 (19.65)
	보통	67 (19.65)	69 (20.23)	41 (12.02)	177 (51.91)
	약간 만족	31 (9.09)	20 (5.87)	21 (6.16)	72 (21.11)
	매우 만족	6 (1.76)	5 (1.47)	1 (0.29)	12 (3.52)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표 9] 유방크기 및 형태에 관한 인지도

2)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조사대상자의 실제 신체 치수와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신체 치수의 응답결과는 [표 10]과 같다. 젓가슴둘레의 경우 실제 신체 치수는 86.94cm 이고 이상적인 신체 치수는 88.19cm로 실제 신체 치수보다 1.25cm 더 큰 치수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젓가슴아래둘레는 실제 신체 치수가 77.37cm이고 이상적인 치수는 75.70cm로 나타나 실제 치수보다 1.67cm 더 작은 치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9]의 유방크기에 대한 불만족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30대 여성들은 본인의 유방보

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유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한 브래지어 치수체계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실제 신체 치수에 따른 브래지어 치수는 젓가슴아래둘레가 77.37cm이고 컵크기에 해당하는 젓가슴둘레와 젓가슴아래둘레의 차이는 9.57cm로 75A 사이즈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상적인 신체 치수에 따른 브래지어 치수는 젓가슴둘레 75.70cm, 젓가슴둘레와 젓가슴아래둘레의 차이는 12.49cm로 75B 사이즈에 해당되어 실제 본인의 유방보다는 한 치수 정도 큰 유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는 실제 신체 치수보다 4.17cm 더 크고 몸무게는 3.84kg 적은 신체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본인의 키보다 크고 날씬하면서 유방은 큰 신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cm, kg					
신체 부위	실제 신체 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젓가슴둘레	86.94	6.25	90.00	70.00	110.00
젓가슴아래둘레	77.37	5.38	80.00	60.00	94.00
키	161.85	4.37	160.00	148.00	174.00
몸무게	53.75	5.64	50.00	39.00	79.00
신체 부위	이상적인 신체 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젓가슴둘레	88.19	4.81	90.00	60.00	105.00
젓가슴아래둘레	75.70	4.57	75.00	55.00	90.00
키	166.02	2.63	165.00	157.00	175.00
몸무게	49.91	3.07	50.00	42.00	60.00

[표 10] 실제 신체 치수와 이상적인 신체 치수

조사대상자의 브래지어 구매 시 치수선택은 [표 11]과 같다. 치수 선택에 있어서 무려 62.76%가 원래 착용하던 사이즈와 같은 것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고 치수선택에 있어 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53.67%로 과반수를 넘어서었다. 또한 치수 선택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시판 브래지어의 치수가 잘 맞지 않아서(36.61%),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 몰라서(24.04%), 정확 치수를 몰라서(19.13%), 브래지어 치수가 다양하지 않아서(19.13%)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인의 브래지어 치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송윤, 최혜선, 이경화(2006)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활동성과 건강 등을 고려한 브래지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슴 유형과 치수를 제대로 파악하여 브래지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30대 여성의 유방유형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도 높은 브래지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N(%)				x ²	
연령	30대 초반(N=126)	30대 중반(N=122)	30대 후반(N=93)	합계(N=341)			
치수선택	입어보고 마음에 맞는지 확인 후 선택	36 (10.56)	26 (7.62)	14 (4.11)	76 (22.29)	8.48 df=6	
	입어 보지 않고 선택	12 (3.52)	11 (3.23)	6 (1.76)	29 (8.50)		
	판매사원의 권유에 따름	6 (1.76)	7 (2.05)	9 (2.64)	22 (6.45)		
	입던 사이즈와 같은 것 선택	72 (21.11)	78 (22.87)	64 (18.77)	214 (62.76)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치수 찾기가 쉽다	62 (18.18)	56 (16.42)	40 (11.73)	156 (46.33)		0.84 df=2
	치수 찾기가 쉽지 않다	64 (18.77)	66 (19.35)	53 (15.54)	183 (53.67)		
	합계	126 (36.95)	122 (35.78)	93 (27.27)	341 (100.00)		
치수선택시 어려움	정확한 치수를 몰라서	11 (6.01)	13 (7.10)	11 (6.01)	35 (19.13)	11.21 df=	
	시판브래지어의 치수가 잘 맞지 않아서	17 (9.29)	27 (14.75)	23 (12.57)	67 (36.61)		
	브래지어의 치수가 다양하지 않아서	13 (7.10)	14 (7.65)	8 (4.37)	35 (19.13)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 몰라서	21 (11.48)	12 (6.56)	11 (6.01)	44 (24.04)		
	기타	2 (1.09)	0 (0.00)	0 (0.00)	2 (1.09)		
	합계	64 (34.97)	66 (36.07)	53 (28.96)	183 (100.00)		

[표 11] 브래지어 치수선택

조사대상자의 브래지어 치수분포는 [표 12]와 같다. 젓가슴아래둘레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젓가슴아래둘레 75cm구간이 42.8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80cm구간(29.91%), 85cm구간(10.26%), 70cm구간(9.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컵치수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A컵이 전체의 40.47%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AA컵(14.66%), A AA컵(14.37%), B컵(12.32%), C컵(12.32%)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특히 AAA컵, AA컵, A컵 등 A컵 치수에 해당하는 분포율이 전체의 69.50%를 차지하여 체형이 서구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젓가슴부위의 치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규격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 : 2009에 의해 규정된 브래지어 규격으로 살펴보면, 75A가 전체의 17.30%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80A(12.90%), 75AA(6.45%), 75B(5.87%), 75C(5.87%), 80AAA(5.28%)의 순으로 나타났다.

		N(%)							
컵치수 젓가슴 아래둘레(cm)	AAA (5cm)이하	AA (7.5cm)	A (10cm)	B (12.5cm)	C (15cm)	D (17.5cm)	E (20cm)	합계	
60	0 (0.00)	0 (0.00)	1 (0.29)	0 (0.00)	1 (0.29)	0 (0.00)	0 (0.00)	2 (0.59)	
65	2 (0.59)	5 (1.47)	1 (0.29)	1 (0.29)	5 (1.47)	0 (0.00)	0 (0.00)	14 (4.11)	
70	6 (1.76)	3 (0.88)	14 (4.11)	3 (0.88)	5 (1.47)	0 (0.00)	3 (0.88)	34 (9.97)	
75	16 (4.69)	22 (6.45)	59 (17.30)	20 (5.87)	20 (5.87)	4 (1.17)	5 (1.47)	146 (42.82)	
80	18 (5.28)	12 (3.52)	44 (12.90)	15 (4.40)	9 (2.64)	3 (0.88)	1 (0.29)	102 (29.91)	
85	6 (1.76)	6 (1.76)	17 (4.99)	2 (0.59)	2 (0.59)	2 (0.59)	0 (0.00)	35 (10.26)	
90	0 (0.00)	2 (0.59)	2 (0.59)	1 (0.29)	0 (0.00)	1 (0.29)	0 (0.00)	6 (1.76)	
95	1 (0.29)	0 (0.00)	0 (0.00)	0 (0.00)	0 (0.00)	1 (0.29)	0 (0.00)	2 (0.59)	
합계	49 (14.37)	50 (14.66)	138 (40.47)	42 (12.32)	42 (12.32)	11 (3.23)	9 (2.64)	341 (100.00)	

음영은 출현율 3%이상을 의미함

[표 12] 젓가슴아래둘레와 컵치수의 상관분포

3.4. 브래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

조사대상자의 브래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브래지어 착용 시 답답함을 느끼는 부위, 브래지어 구입 후 발생하는 불만족 요인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브래지어 착용 시 답답함을 느끼는 3가지 부위의 순위는 [표 13]과 같다. 30대 초반의 1순위는 와이어 부위, 2순위는 컵밑받침과 날개연결 부위, 3순위는 어깨끈 부위로 나타났다. 30대 중반과 후반의 순위도 같은 결과를 보여 30대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와이어 부위, 컵밑받침과 날개연결 부위, 어깨끈 부위, 앞중심 부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브래지어 연구개발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브래지어 구입 후 착용하면서 발생하는 불만족 요인의 순위는 [표 14]와 같다. 30대 초반의 경우 1순위가 사이즈와 세탁관리의 편리성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착용감과 가격 그리고 3순위는 착용감, 소재 및 촉감으로 나타났다. 30대 중·후반의 경우에는

		N(%)											
연령	부위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와이어부위	3(0.88)	5(1.47)	5(1.47)	24	6(1.76)	3(0.88)	4(1.17)	28	7(2.05)	3(0.88)	3(0.88)	30
	컵밑받침과 날개연결부위	59(17.30)	19(5.57)	8(2.35)	223	48(14.08)	29(8.50)	14(4.11)	216	44(12.90)	21(6.16)	6(1.76)	180
	날개 부위	4(1.17)	32(9.38)	12(3.52)	88	13(3.81)	20(5.87)	12(3.52)	91	12(3.52)	21(6.16)	11(3.23)	89
	밴드 부위	5(1.47)	13(3.81)	10(2.93)	51	8(2.35)	19(5.57)	14(4.11)	76	3(0.88)	4(1.17)	10(2.93)	27
	어깨끈부위	5(1.47)	10(2.93)	18(5.28)	53	3(0.88)	10(2.93)	18(5.28)	47	0(0.00)	10(2.93)	12(3.52)	32
	앞중심부위	6(1.76)	16(4.69)	20(5.87)	70	6(1.76)	12(3.52)	15(4.40)	57	1(0.29)	7(2.05)	9(2.64)	26
	기타	11(3.23)	17(4.99)	33(9.68)	100	10(2.93)	10(2.93)	24(7.04)	74	6(1.76)	12(3.52)	26(7.62)	68
	합계	33(9.68)	14(4.11)	18(5.28)	145	27(7.92)	19(5.57)	21(6.16)	140	20(5.87)	15(4.40)	15(4.40)	105
	합계	0(0.00)	0(0.00)	2(0.59)	2	1(0.29)	0(0.00)	0(0.00)	3	0(0.00)	0(0.00)	1(0.29)	1
	합계	126(36.95)	126(36.95)	126(36.95)	-	122(35.75)	122(35.75)	122(35.75)	-	93(27.27)	93(27.27)	93(27.27)	-

상대빈도: (1순위*3)+(2순위*2)+(3순위*1)로 산출하였음

[표 13] 브래지어 착용 시 답답함을 느끼는 부위

문항	연령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사이즈		28(8.21)	10(2.93)	5(1.47)	109	20(5.87)	12(3.52)	6(1.76)	90	20(5.87)	9(2.64)	2(0.59)	80
디자인		2(0.59)	2(0.59)	5(1.47)	15	4(1.17)	3(0.88)	8(2.35)	26	3(0.88)	1(0.29)	4(1.17)	15
색상		1(0.29)	5(1.47)	4(1.17)	17	2(0.59)	3(0.88)	4(1.17)	16	3(0.88)	0(0.00)	2(0.59)	11
가격		9(2.64)	20(5.87)	11(3.23)	78	15(4.40)	10(2.93)	9(2.64)	74	6(1.76)	7(2.05)	8(2.35)	40
상표		0(0.00)	0(0.00)	0(0.00)	0	0(0.00)	1(0.29)	1(0.29)	3	0(0.00)	0(0.00)	0(0.00)	0
유행성		0(0.00)	1(0.29)	0(0.00)	2	1(0.29)	1(0.29)	2(0.59)	7	1(0.29)	1(0.29)	1(0.29)	6
활동성		9(2.64)	8(2.35)	10(2.93)	53	8(2.35)	11(3.23)	5(1.47)	51	10(2.93)	7(2.05)	5(1.47)	49
바느질상태		2(0.59)	1(0.29)	1(0.29)	9	1(0.29)	4(1.17)	5(1.47)	16	1(0.29)	5(1.47)	1(0.29)	14
세탁관리편리성		28(8.21)	16(4.69)	14(4.11)	130	17(4.99)	17(4.99)	15(4.40)	100	6(1.76)	12(3.52)	8(2.35)	50
소재 및 촉감		8(2.35)	12(3.52)	18(5.28)	66	6(1.76)	11(3.23)	10(2.93)	50	2(0.59)	11(3.23)	10(2.93)	38
보정감		12(3.52)	12(3.52)	11(3.23)	71	17(4.99)	7(2.05)	10(2.93)	75	7(2.05)	12(3.52)	12(3.52)	57
착용감		14(4.11)	22(6.45)	23(6.74)	109	20(5.87)	19(5.57)	18(5.28)	116	13(3.81)	16(4.69)	14(4.11)	85
실루엣		2(0.59)	6(1.76)	10(2.93)	28	2(0.59)	6(1.76)	10(2.93)	28	2(0.59)	4(1.17)	7(2.05)	21
와이어		10(2.93)	11(3.23)	14(4.11)	66	9(2.64)	16(4.69)	19(5.57)	78	19(5.57)	8(2.35)	18(5.28)	91
기타		1(0.29)	0(0.00)	0(0.00)	3	0(0.00)	1(0.29)	0(0.00)	2	0(0.00)	0(0.00)	1(0.29)	1
합계		126(36.95)	126(36.95)	126(36.95)	-	122(35.75)	122(35.75)	122(35.75)	-	93(27.27)	93(27.27)	93(27.27)	-

상대빈도: (1순위*3)+(2순위*2)+(3순위*1)로 산출하였음

[표 14] 브래지어 구입 후 발생하는 불만족 요인

사이즈와 착용감, 와이어 순으로 불만족 요인을 선택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이즈를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와이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이즈, 세탁관리의 편리성, 착용감, 와이어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시간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특성상 사이즈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오랜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므로 건강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방형태와 사이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브래지어를 개발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분석하여 맞춤새와 착용감이 우수한 브래지어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0대 초·중·후반 모든 연령집단에서 브래지어 착용을 통해 몸의 균형을 높이고 겉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는 전반적인 상체 보정을 가장 중요시하며 구매 시 사이즈, 디자인, 착용감 순으로 고려하고, 조사대상자의 56.01%가 몸을 조이는 브래지어보다는 적당한 맞춤새를 선호하여 신체 보정감은 유지하면서도 조금 여유로운 사이즈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정효과와 착용감이 높은 브래지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착용자는 자신의 가슴치수와 유방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조업체는 30대의 유방형태와 착용선호도를 반영한 치수체계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치수선택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브래지어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유방 받쳐주기, 유방 모아주기, 젖꼭지점이 드러나는 것 방지하기가 자연스러운 유방모양 만들기, 유방 풍만하게 보이기 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2차적인 미적 효과보다 1차적인 브래지어의 기본 효과를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래지어 착용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방크기 변화와 유방 돌출 정도 변화가 유방 벌어짐 정도 변화와 유방 치짐 정도 변화 등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로 착용 시 얻는 효과는 기대효과와는 반대로 2차적인 미적효과의 비율이 높았으며 모든 항목의 효과 정도도 보통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3)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유방형태는 원추형>반구형>하수형>납작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추형과 반구형의 비율은 낮아지고 하수형의 비율은 높아졌다. 유방형태, 크기, 돌출 정도, 벌어짐 정도, 치짐 정도, 유방의 위치에 관한 만족도는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통이나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유방변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브래지어 치수선택은 조사대상자 중 무려 62.76%가 입던 사이즈와 같은 것을 선택한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연령증가에 따른 유방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브래지어 구매 시 치수 찾기가 쉽지 않고 잘 맞지 않으며 어느 정도가 잘 맞는 치수인지 모른다는 응답과 같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브래지어 치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브래지어 착용 시 불만족 요인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부위는 와이어, 컵밑받침과 날개 연결 부위,

어깨끈 부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 후 발생하는 불만족요인으로는 사이즈, 착용감, 와이어 부분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연령증가에 따른 유방형태 변화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착용자 스스로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신의 유방형태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변화가 미비한 시기에 착용한 브래지어를 고집하는 대신 변화를 반영한 브래지어를 선택한다면 하수현상으로 인한 유방형태, 크기, 돌출정도 및 벌어짐과 처짐 정도를 충분히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래지어 유통업체는 판매직원이 다양한 유방형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소비자 개인의 유방유형에 맞는 브래지어를 권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제품의 시장성 등의 이유로 브래지어 치수체계에 대한 제조업체의 개선노력은 아직까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여성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도 필요에 의해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브래지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겉옷과 달리 착용자의 신체에 밀착되는 제 2의 피부로써의 역할과 전반적인 상반신 실루엣을 보정해주는 브래지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착용자가 자신의 유방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구매 시에는 기존 브래지어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판매직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적절한 브래지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제조업체는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퇴화기에 접어드는 30대 여성의 유방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품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의 의견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야만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불만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도 연령별 소비자의 착용습관 및 불만족 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란제리 시장을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시키고 연령층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유방유형변화를 고찰하는데 용이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30대 여성뿐 아니라 타 연령층을 위한 맞춤새와 착용감이 향상된 브래지어 제작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윤희 (2000). 「중년여성의 브래지어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영 (2007). 「30대 여성의 유방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설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주 (2012). 「브래지어 하밴드 구성에 따른 의복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2008). 「브랜드별 브래지어 착용 맞춤새와 패턴분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향 (2009). 노년기 브래지어 패턴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97-406.
- 민유숙 (2012). 「20대 여성의 유방유형에 따른 인체공학적 브래지어 패턴 설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유신 (2001).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설정 및 의복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미, 김영숙, 손희순 (1996).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 -일반환경변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2). 277-302.
- 반홍우, 최종명, 권수애, 손부현 (2009). 여대생의 브래지어 착용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93-1101.
- 서영희, 정삼호 (2008). 노년기 여성의 팬티와 브래지어 구매행동 연구 및 시판 브래지어 착의실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7). 1013-1022.
- 손부현, 권수애 (2012). 20대 여대생의 체형 및 유방유형별 브래지어 착용실태조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8). 791-801.
- 오송윤, 최혜선, 이경화 (2006). 브래지어의 맞춤새 향상을 위한 착용실태 조사 -1924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9/10). 1378-1388.
- 이현영. 2002. 「3차원 계측에 의한 중년 여성용 브래지어의 설계요소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신현, 김미숙 (2008). 3차원 인체 측정을 이용한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고려한 브래지어 패턴 연구. 『복식문화연구』, 16(3). 502-517.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9).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2009』. 서울 : 한국표준협회.
- 차수정, 손희순 (2010). 한국 성인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및 구매실태 조사연구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2), 303-317.
- OECD (2011). 『FACTBOOK 2012』.